



‘진격의 광주 FC’ 김민수가 있다

스피드·날카로운 크로스, 새로운 공격의 핵

전지훈련캠프, 7골 5도움 최다 공격포인트

광주 FC의 김민수가 숨겨왔던 스피드로 1부리그의 꿈을 이끈다.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던 올 시즌 김민수는 광주 FC가 주목하는 공격 자원이다.

2008년 프로에 데뷔한 김민수는 통산 85경기에 출전해 6득점 10도움을 기록한 7년차의 선수다.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과감하고 저돌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가 김민수의 장점이다.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진 원석이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이기도 하다.

광주 유니폼을 입은 김민수가 유감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광양·일본 시즈오카에서 계속된 겨울 캠프에서 7골5도움으로 가장 많은 포인트를 올렸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만나면서 제대로 물이 올랐다.

김민수는 “감독님께서 팀을 위한 전술과 훈련을 강조하신다. 감독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니까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마음이 편하니까 운동이 더 잘되는 것 같다. 내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원석이 보석으로 가다듬어 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기일 감독대행은 ‘가진 것이 많은 선수’라고 김민수를 평가한다. 그 능력이 아직 100% 발휘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남 감독대행이 김민수에게 기대하는 것 역시 더 많다.

김민수는 “사실 내가 스피드가 빠르다는 사실을 대학교 2학년 때 알았다. 축구 선수들이야 워낙 빠르기도 하고 나는 느렸다. 2학년 때 웨이트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경기를 하면서 치고 나가니까 수비수들이 떨어져 나갔다. 그냥 보통의 선수였는데 내가 스피드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웃었다.

시즈오카에서 새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며 자신의 색을 찾은 김민수는 5일 목포 캠프에서 훈련을 재개

했다.

이번 캠프는 뒤늦게 발견한 스피드처럼 또 다른 자신의 능력을 찾아가고 키워가는 시간이다. 또 가을 결실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자신이 그리고 있는 가을 모습은 우승컵을 든 당당한 새신랑이다.

시즌이 끝나고 결흔식을 올릴 예정인 김민수는 “선수들끼리 시즌 3~4경기를 남겨놓고 우승을 확정짓자는 얘기를 한다. 기본 좋게 우승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싶다”며 “대학교때 한번 우승을 해보기는 했지만 우승과는 큰 인연이 없었다. 시민 구단에서 뛰었기 때문에 프로에 있으면서 우승을 목표로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아작은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최선을 다해 동료들과 우승의 기쁨을 누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은빛 스톤’

여자컬링, 주니어 세계 선수권 ‘銀’

한국 컬링이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경애(20·경북체육회)와 김선영(21·경북체육회), 김지현(18·의성여고), 구영은(19·의성여고), 오은진(21·의성스포츠클럽)으로 구성된 여자 주니어 대표팀은 5일(이하 한국시간) 스위스 플림스에서 열린 2014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캐나다에 4-6으로 져 준우승했다.

한국 컬링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따낸 것은 주니어와 일반부를 통틀어 최초로. 종전까지는 2004년 주니어 대회에서 남자 대표팀과 2012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대표팀이 각각 4강에 오른 것이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

주니어 대표팀은 선배들의 성적을 뛰어넘어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 첫 세계선수권대회 메달을 은빛으로 장식했다.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역대 두 번째일 만큼 대단한 기록이다.

남자부에서는 아시아 팀이 시상대에 오른 적이 없고, 여자부에서는 일본이 1998~1999년 연달아 은메달을 따낸 것이 역대 최고 성적이다.

역사가 고작 20여년에 불과한 한국 컬링이 종주국이라는 캐나다를 비롯해 스코틀랜드, 스웨덴 등 전통의 강호들을 연파하고 일궈낸 기적이다.

한국은 예선에서 캐나다·스코틀랜드·스위스 등 강국들을 연달아 잡아 7승 2패로 풀리그 1위에 올랐고, 준결승에서는 예선 패배를 안긴 스웨덴을 꺾는 등 만만찮은 기량을 과시했다.

아쉽게 결승에서 분패했지만 한국은 중반 이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을 벌이며 캐나다와 대등히 맞섰다.

/연합뉴스

이봉주, 척수장애인 자선마라톤대회 감독



‘불타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45)가 오는 5월 영암 등지에서 치러지는 척수 손상 장애인을 위한 자선 마라톤 대회의 운영 전반을 감독한다.

척수 손상 장애인 치료·연구 자선재단인 ‘윙스 포 라이프’는 오는 5월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자선 마라톤 대회인 ‘윙스 포 라이프 월드 런’의 한국 스포츠디렉터로 이봉주를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봉주는 대회 참가 선수들의 안전, 코스 점검 등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 역할을 맡는다.

한국 대회는 5월4일 오후 7시 영암 F1 경주장에서 시작해 목포대교, 해남만 간척지 등을 지나는 코스에서 치러진다.

주최 측은 대회 수익금을 척수 손상 치료 연구 기관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어딜 넘봐~”

미국 프로 아이스하키 콜롬버스 블루 재키스의 데이비드가 4일 콜롬버스 내이션얼아이드 아레나에서 열린 댈러스 스타스와 경기에서 상대 선수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오승환 “돔구장 두렵지 않다”

日 언론 우려에 자신만만

일본 언론은 “돔구장 적응이 관건”이라고 하지만 오승환(32)은 “여러 구장 중 하나일 뿐”이라며 무덤덤하다.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마무리 오승환이 돔구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한국에는 아직 돔구장이 없지만 오승환은 일본에서 열린 국제대회를 통해 다섯 차례나 돔구

장에서 등판했고, 3.2이닝 무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오승환은 프로야구 신인이던 2005년 11월 한국 챔피언 삼성 라이온즈 소속으로 도쿄돔에서 열린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에 출전해 3경기에서 1.2이닝 무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듬해(2006년) 다시 아시아시리즈에 나선 그는 도쿄돔에서 1이닝 무피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펼쳤다. 2006년 3월 도쿄돔에서 열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아시아라운드에서도

종국전에 등판해 1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한신의 홈 고시엔구장에는 ‘지붕’이 없지만, 매 시즌 40경기 이상을 돔구장에서 치른다. 같은 센트럴리그에 속한 요미우리 자이언츠(도쿄돔)와 주니치 드래건스(나고야돔)가 돔구장을 사용하고 있다.

오승환은 “돔구장을 이미 경험했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등 투수가 편한 부분이 있다”며 “적응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대원빌딩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후원 KORAIL 한국관광공사

광주본부 강원관광재단



3월 21일(금) 21시 출발

정동진 · 낙산사 · 휴휴암 무박2일 기차여행

날 짜	시 간	일 정	날 짜	시 간	일 정
3/21(금)	21:00	목포역/ 나주역/ 광주송정역/ 정동진 정음역/ 낙산역 출발	3/22(토)	10:30	휴휴암 도착 후 관광
3/22(토)	05:00	정동진 도착 후 일출, 자유관광		11:30	주목진 어시장 도착 후 자유중식
	08:30	낙산사 도착 후관광		14:30	동해역 도착 후 출발
				22:30	목포역/나주역/광주송정역/정음역/낙산역 도착

1인 요금

성인 89,000원~

경로(65세 이상) 86,000원~

소아(만12세 미만) 76,000원~